



10경기 만에 승자가 됐다. 3일 슈퍼매치에서 헤딩 골을 터뜨린 서울 김진규가 환호하는 서포터스를 향해 승리의 'V'를 그려 보이고 있다.

상임 | 박화용 기자 inphol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최용수의 한 수...수원의 허를 찔렀다

서울 3년만의 V '슈퍼매치의 재구성'

경기전: 수원압박 예상 파울유도·체력안배
경기중: 잘 버틴 4-4-2...높이와 힘 역이용
경기후: 서정원 감독 진심어린 축하 '훈훈'

승패가 갈리는 시간은 단 90분. 하지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FC서울 최용수 감독은 7월31일 제주와 경기직전 취재진이 수원 삼성에 대해 묻자 "지금 머릿속은 9.5(제주) 대 0.5(수원)다. 오늘 경기 후 수원 전을 생각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주를 1-0으로 이긴 직후부터 수원 잡을 목표를 고민했을 것이다. 최 감독이 3일 휴에서 수원을 2-1로 누르며 3년 만에 슈퍼매치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정식 감독 취임 첫해인 작년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승승장구한 최 감독에게 슈퍼매치는 육에 되었다.

서울은 2010년 8월28일 이후 수원과 9경기(FA컵 1경기 포함)에서 2무7패였다. 최 감독이 서울 지휘봉을 잡은 뒤 전적은 2무5패. 드디어 서울이 웃었다. 서울의 자랑 스트라이커(수비수+스트라이커)가 또 일을 냈다. 전반 29분 폴리아의 코너킥을 아

디가 머리로 받아 넣는데 이어 후반 8분 폴리아의 프리킥을 김진규가 감각적인 헤딩으로 연결해 그물을 갈랐다. 수원은 후반 34분 조지훈의 만회골로 영패를 면했다. 서울은 최근 홈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35로 선두 포항(42), 2위 울산(41)을 추격했다. 경기장에는 4만3681명이 입장해 올 시즌 최다관중 기록을 세웠다. 서울의 슈퍼매치 승리 과정을 복기했다.

●비포

최 감독은 수원의 강한 압박을 예상했다. 선수들에게 반칙을 유도하라 일했다.(실제 파울횟수 서울6, 수원20. 경고는 서울2, 수원3. 서울 경고 1장은 골키퍼 최용수의 시간지연)

더운 날씨도 염두에 됐다. 초반부터 오버 페이스하지 말고 90분 동안 체력 안배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 외적인 부분도 신경 썼다. 인터뷰 때 선수들에게 도발금지령을 내렸다. 쓸데없는 말로 상대의 전의를 불태우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흥분보 감독이 작년 런던올림픽 한일전(3.4위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사전인터뷰에서 절대 일본을 자극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최 감독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9번 못 이기지 않았느냐. 또 저

도 잃을 게 없다. 편하게 하라"고 선수들에게 말했다. 속마음이야 그렇지 않았지만 자신부터 긴장감을 감춰야 했다. 선수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 했다.

●90분

경기는 예상 밖으로 흘렀다. 의외로 수원이 초반 15분을 지배했다. 수원 서정원 감독이 "서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넓은 것을 집중 공략하라"고 주문한 것이 잘 맞아들었다. 그러나 사실 서울은 이 공략 법에 익숙하다. 최 감독은 올 시즌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위해 주 포메이션을 작년의 4-3-3에서 4-4-2로 바꿨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1명 줄다보니 서울을 만나는 모든 팀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노린다.

서울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특히 하대성과 고명진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준 게 중요했다. 최 감독이 평소 가장 강조하는 포지셔닝의 힘이였다.

전반 중반 이후 서서히 서울 쪽으로 흐름이 넘어왔다.

서울은 라몬치치와 스테보를 앞세운 수원의 높이와 힘에 늘 고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높이와 힘을 역이용했다. 문전 근처에서 공중 볼이 뜰 때마다 수원은

긴장했다. 긴장감은 선수들의 발을 묶고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했다. 수원은 최근 서울 수비수들이 연일 세트피스마다 골을 넣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했다.

서울이 2골 차로 달아나며 승부가 기울었다. 서울은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14개 클럽 중 볼을 가장 잘 돌린다. 최 감독은 후반 26분 한태유를 넣어 약점이던 중원 아래 부분을 보강했다. 경기 막판 최효진과 에스쿠데로 투입도 주효했다. 이들은 빠른 발과 강한 체력으로 상대 측면 요원들의 돌파를 원천봉쇄했고 역습 때 카운터 어택을 노리며 다급한 상대를 괴롭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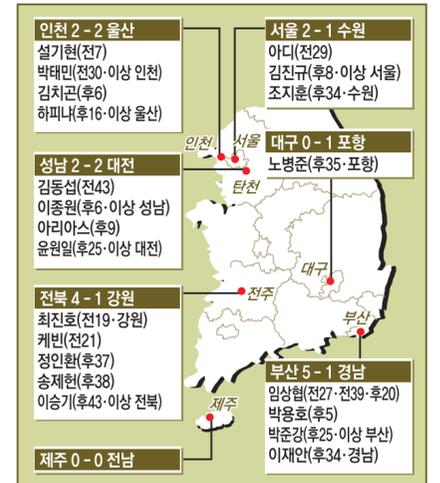
●애프터

정장 같은 경기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분위기는 훈훈했다.

서정원 감독은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최 감독에게 축하 한다"고 말한 뒤 "다음에는 우리가 이겨 더 흥미로운 슈퍼매치 구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용수 감독도 "역시 수원다운 좋은 경기를 했다.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지만 두 팀 모두 팬들을 위해 좋은 축구를 했다"고 패자에게 덕담을 건넸다.

상임 | 윤택서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골잡이



■현장리포트

김학범감독 "휴가철 때문에..."

성수기 교통 혼잡...장거리원정에 선수체력 안배 비상



4일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가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 강원 김학범(사진) 감독은 경기 전 마주한 취재진에게 물었다. 휴가철을 맞아 전주 내려오는 길이 막히진 않았느냐는 것. 김 감독은 웃음기 면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루 앞서 전주에 당도한 강원 구단의 쉽지 않은 긴 여정을 소개했다.

강원을 비롯한 K리그 클럽은 보통 원정 경기를 치를 때 하루 전 도착한다.

선수단의 피로를 낮추면서 체력과 경기력을 안배하는 것이다. 강원 선수단도 3일(토요일) 오전 전주로 출발했다. 여느 때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하지만 여름 성수기가 문제였다. 피서를 위해 지방 곳곳을 찾는 관광객과 맞닥뜨리면서 발이 묶였다. 강릉에서 수원으로 이동해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로 가는 길은 거대한 주차장 같았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발만 뚱뚱 굴렀다. 전주까지 무려 5~6시간의 강행군.

선수단의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김 감독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 거리가 만만찮아 휴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가 모두 장거리 원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호기를 잃지 않았다. 강원도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휴가지다. "타 구단이 휴가철 때 강원 원정에 걸리면 적지 않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고 웃었다. 마치 내년을 기약하는 짓같은 모습이었다.

경기에 들어선 강원 선수들은 긴 원정 버스의 피로 속에서도 뛰고 또 뛰었다. 전반 높은 공 점유율로 최진호의 선제골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체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후반 10분을 남기고 연달아 3골을 허용하며 1-4로 패했다.

전주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권찬수 GK코치가 서브 GK?

2~3번 골키퍼 정산·양한빈 부상으로 엔트리 등록

20	윤원일	수원
6	박진표	수원
49	김현우	수원
11	김태환	수원
7	김철호	수원
80	재필호	수원
28	이승필	수원
9	최용수	수원
99	권찬수 (GK)	수원
27	김진욱	수원
10	기 가	수원
22	이종원	수원
15	김경래	수원
77	김민성	수원
18	김 현	수원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성남일화 안익수 감독의 심정이 이렇다. 안 감독은 4일 대전 시티즌과 21라운드 홈경기에서 권찬수(39) 골키퍼 코치를 서브 골키퍼로 18명 출전 엔트리(사진)에 넣었다. 교육지적이었다. 성남은 두 번째 후보 골키퍼 정산이 6월 초 부상을 당한데 이어 세 번째 후보 골키퍼 양한빈마저 7월31일 전남 원정에서 쓰러졌다. 둘 다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주전 골키퍼인 전상욱만 남았다. 올 여름 선수등록 기간은 끝나 추가영입은 불가능하다.

만약 전상욱이 부상을 입거나 경고누적이면 꼼꼼 없이 권 코치가 잠잠을 깨야 한다.

안 감독은 "모 팀에 마지막까지 요청했는데 자기네는 안 쓸 거면서 주지 않더라. 다 승강제로 인한 각박한 현실 아니겠느냐. 수비수 임재민이 학창시절 골키퍼 경험이 있는데 훈련이라도 시켜야겠다"고 말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한편, 성남은 이날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2로 비겼다. 전날은 부산이 경남을 5-1로 크게 이겼다. 제주와 인천은 전남, 울산과 각각 0-0, 2-2로 비겼고 포항은 대구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성남 | 윤택서 기자

중원 우세 수원, 졌지만 희망을 쏜다

만점수비 민상기·만회골 조지훈 활력쇼

10경기, 3년여 만에 찾았을 상처는 쓰라렸다. 그래도 수원은 강했다. 호화 전력의 서울에 비해 모기업(삼성전자) 차원에서 내려진 운영비 절감 지시의 직격탄을 맞은 수원이다.

용병도 한 명(서울은 에스쿠데로를 후반 교체 투입해 총 4명의 외국인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섰다). 이렇잖아도 격차가 큰 출전 엔트리만 보면 서울이 압도해야 마땅한데, 수원은 대등하게 싸웠다. 공식 기록상의 볼 점유율 51대49, 점유시간도 28분 32초의 수원이 서울(27분48초)보다 오히려

길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중원에서 수원이 유리하게 풀어갔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킥오프 전 "현재 국가대표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흥분보호 일원으로 동아시아컵에서 활약한 윤일록-하대성-고요한(이상 서울)에 맞선 대표팀 출신 홍철-서정진-이용래(이상 수원)는 뒤지지 않았다. 주장 오창은을 비롯한 고참들도 서울전 이를 전부터 합축을 자청, 경기 도 화성 클럽하우스에서 지내며 분위기를 다졌다. 수원이 마치 서울에 질 때가 된 듯한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시선도 선수단을 더욱 끈끈하게 했다.



슈퍼매치에서 라이벌 서울의 골문에 귀중한 만회골을 꽂아 넣은 수원 조지훈(오른쪽)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상임 | 박화용 기자

여기에 새로운 '수비형 킬러'의 등장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서울 용병 공격수 데안은 늘 수원에 약했는데, 이번에도 한계가 뚜렷했다. 프로 4년 차 중앙 수비수 민상기가 데안을 틀어막았

다. 과거 슈퍼매치에서 파괴주가 해온 역할을 민상기가 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민상기가 데안을 막으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다. 그런 상황은 막겠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용병 이탈과 정대세의 부상으로 공백이 큰 화력을 채우기 위해 수원이 선보인 '제로(0) 톱' 공격도 정착했다. 유일한 용병인 브라질 공격수 산토스는 경기당 12km 이상의 놀라운 활동량을 보여주며 희망을 안겼다. 조지훈의 만회 골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공격 루트가 서울 수비를 뚫고 다니며 생긴 공간의 힘이 컸다.

서 감독도 "활력소가 생겼다. 격정에 비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